교육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6.(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1. 17.(화) 06:00
(지 면) 2026. 11. 17.(화) 석간

이주배경학생, 두 개의 언어로 꿈을 말하다

-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 16개 시도에서 예선을 통해 선발된 58명의 학생이 16개 언어로 이중언어 실력 발휘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엘지(LG)는 11월 14일(토)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의 강점과 자긍심을 키우고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자 2013년부터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8년부터는 엘지(LG)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 (공동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번 전국대회에는 16개 시도 예선(1,118명 참여)을 통해 선발된 시도 대표 58명(초등 34명, 중등 24명)이 참가하여,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총 16개 언어*)로 4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 대만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북경어, 스페인어, 싱할라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태국어, 파슈토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 (자아) '나'에 대한 이야기, (문화)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경험)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를 배운 경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전국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특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국립국제교육원장상,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엘지(LG)에서 지도교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참가 학생의 소속 학급에는 과자상자를 제공하였다.

초등부 대상 시린 학생(서대구초)은 한국에서 만난 음식 문화, 한국어의 벽을 넘은 방법, 전교 임원 선거에 도전할 때의 용기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표하였다. 중등부 대상 디바시니 학생(오송중)은 자신이 배우고 있는 네 개의 언어를 강점으로 키워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한국어와 타밀어로 발표하였다.

대상 수상자의 발표 내용 일부

○ **[초등부 대상(러시아어) / 벽을 넘어]** 저는 음식의 벽을 넘었고, 언어의 벽을 넘었고, 두려움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벽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정표였습니다.

○ **[중등부 대상(타밀어) / 하루에 네 번, 나는 다른 내가 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네 개의 언어를 쓰면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니?"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개의 언어는 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게 해주는 네 개의 창입니다.



대상 및 금상 수상자



전체 수상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와 함께 부모님의 모국어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미래에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이어줄 국제적인 인재를 미리 만난 것 같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이중언어 역량을 잘 키워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요
2.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시상 결과
3.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대상 원고
4.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포스터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담당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붙임1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요

□ 추진목적

○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키우고** 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학교 및 한국사회 적응** 지원

○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제고**하여 다양한 언어 및 문화를 배우며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환경 조성**

□ 대회 개요

○ **(일시)** 2026. 11. 14. (토) 10:00 ~ 17:00 ※ (시상식) 16:00 ~ 17:00

○ **(장소)**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 **(주최)** 교육부, 엘지(LG)

○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세부 내용

○ **(운영 영역) 초등부**(초등학교 1~6학년) **/ 중등부**(중·고등학생)

○ **(참가) 초·중·고 재학 이주배경학생 중 시도대회 선발 58명**

○ **(발표 방법)** 4개 주제* 중 하나의 주제로 **한국어** 발표 후, 동일한 내용을 **부모 모국어****(영어 제외)로 발표하고 **대회 당일 심사·시상**

* (자아) '나'에 대한 이야기, (문화)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경험)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를 배운 경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 16개 언어(대만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북경어, 스페인어, 싱할라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태국어, 파슈토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 시상 규모

구분	수상인원		상장	부상
	초등부	중등부		
대상	1	1	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50만원
금상	2	2	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40만원
은상	5	5	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30만원
동상	7	7	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20만원
특별상	7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문화상품권 20만원
특별상	4	2	국립국제교육원장상	문화상품권 20만원
특별상	6	6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상	문화상품권 20만원
합계	32	27		

붙임2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시상 결과

□ 초등부[총 34명]

구분	지역	학교	성명
대상(1명)	대구	서대구초등학교	시린
금상(2명)	경남	밀양초등학교	이민호
	충남	천안와촌초등학교	정민규
은상(5명)	충남	직산초등학교	김나연
	경북	성암초등학교	김서연
	경기	마송중앙초등학교	김서영
	충남	송악초등학교	디싸나야크 무다리게 사유루 메트담
	경북	임당초등학교	사피나
동상(7명)	경남	김해율산초등학교	강소헌
	제주	풍천초등학교	라비콰
	대전	대전봉명초등학교	송아름
	경기	수원매화초등학교	암나
	경기	원일초등학교	얀마크
	인천	인천함박초등학교	유안나
	세종	다빛초등학교	이지호
특별상(7명) (국가평생 교육진흥 원장상)	충북	대소초등학교	민코이
	부산	오륙도초등학교	백시아
	세종	세종도원초등학교	보누
	제주	인화초등학교	정채이
	대전	대전전민초등학교	최이안
	전북	전주온빛초등학교	한채원
	충북	강서초등학교	황서연
특별상(4명) (국립국제 교육원장상)	강원	서상초등학교	김미진
	울산	동백초등학교	노리온
	전남	마산초등학교	이사랑
	부산	금빛초등학교	트로티농 레티시아
특별상(8명) (한국외국어 대학교 총장상)	대구	대구논공초등학교	강율리아
	경기	세아초등학교	배대현
	서울	서울이태원초등학교	슬라바
	서울	서울장안초등학교	아이삭
	서울	서울용마초등학교	이샬
	전북	전주송북초등학교	이수린
	전남	도곡중앙초등학교	정지윤
	광주	월곡초등학교	최빅토리아

□ 중등부(총 24명)

구분	지역	학교	성명	발표 언어	지도교사
대상(1명)	충북	오송중학교	디바시니	타밀어	박지연
금상(2명)	충북	대성여자중학교	마디나	우즈베크어	정영석
	경남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안디아나	러시아어	강 민
은상(5명)	충남	태안여자고등학교	공나영	타갈로그어	노호원
	대구	함지고등학교	김발레리야	러시아어	지혜연
	충남	천안업성고등학교	이 알렉세이	러시아어	류필하
	서울	성덕여자중학교	주이효	북경어	한탁환
	경기	정남중학교	허지원	태국어	백정혜
동상(7명)	대전	대전새미래중학교	가혜원	북경어	강수희
	제주	한림여자중학교	김연희	북경어	손유미
	인천	연화중학교	마르와	페르시아어	구경회
	서울	선정고등학교	마키타 아이리	일본어	최홍길
	인천	부개고등학교	이몽함	북경어	최정범
	부산	덕문여자고등학교	최수안	일본어	문소영
	경북	동지여자중학교	함성은	북경어	김효정
특별상(3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강원	상지여자고등학교	김하연	베트남어	이정규
	세종	새롬중학교	이혜린	북경어	김은진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진김지	베트남어	문희경
특별상(2명) (국립국제교육원장상)	광주	영천중학교	김 크세니아	러시아어	이윤수
	경기	경일고등학교	속디아나	러시아어	손주영
특별상(4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	울산	야음중	라피	우르두어	이성옥
	전남	광양용강중학교	박태은	일본어	강회연
	울산	가온중	손닝미혜	북경어	이은진
	전북	원광중학교	허주혁	베트남어	이봉주

붙임3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대상 원고

□ 초등

지역	대구	학교명	서대구초	이름	
한국어				러시아어	
제목	벽을 넘어			Преодолевая преграды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서대구초등학교 6학년 시린입니다.
한국에서는 힘든 일을 이겨낼 때 '벽을 넘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만난 세 개의 벽과, 그 벽을 어떻게 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첫 번째 벽은 음식 문화였습니다.
6살 때 어린이집에서 처음 받은 식판 위에 하얀 두부와 빨간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두부의 부드러운 맛에 반해, 비슷하게 생긴 깍두기를 입에 넣었다가 눈물, 콧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매운맛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빵에 김치를 곁들여 먹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음식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벽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동화책을 읽었고, 집에서도 따로 공부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처음 본 받아쓰기 시험은 0점이었지만, 나중에는 90점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단군왕검, 수학의 분수와 같이 생소한 개념을 만날 때면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는 다섯 과목 중 네 과목에서 백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벽은 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전교임원선거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전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국적이 다른 저를 뽑아 주지 않을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결과 5학년 때 전교 부회장이 되었고, 올해는 전교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전교회장으로서 1학년 후배들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후배들이 "시린 언니처럼 멋진 전교 회장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제게 그 말은 어떤 상보다 값진 선물이었으며,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식의 벽을 넘었고, 언어의 벽을 넘었고, 두려움의 벽도 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벽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이정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높은 벽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Ширин.
Я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учусь в 6-м классе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Содэгу.
В Корее, когда человек преодолевает трудности, говорят: ≪Перешагнуть через стену≫. Сегодня я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о трёх стенах, с которыми я столкнулась в Корее, и о том, как смогла их преодолеть.
Первой стеной стала культура питания.
Когда мне было шесть лет, в детском саду я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а поднос с едой. На нём лежали белый тофу и красный ккакдуги. Мне понравился нежный вкус тофу, поэтому я решила попробовать и ккакдуги. Но как только я положила его в рот, от остроты у меня потекли слёзы и даже нос! Я до сих пор хорошо помню этот момент.
Мне понадобилось время, чтобы привыкнуть к острой пище. А сейчас я даже ем хлеб с кимчи. Корейская и узбекская кухня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но каждая по-своему прекрасна.

– 중략 –

□ 중등

지역	충북	학교명	오송중학교	이름	디바시니
한국어				타밀어	
제목	한국에 온 첫날			தலைப்பு: ஒரு நாளில் நான்கு முறை, நான் வேறு ஒரு நானாக மாறுகிறேன்!	

나마스떼, 완낙캄, 헬로,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루에 네 번, 언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당찬 중학생, 디바시니입니다. 아침 7시, 눈을 뜨면 엄마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십니다. “디바시니, 사빠두 따야르, 사삐딸라마?” “밥 다 됐어, 먹을까?” 라는 뜻입니다. 저는 타밀어로 대답하며, 조금 더 어리고 애교 많은 딸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라는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 한국말과 소리가 비슷한데?’ 그때부터 두 나라의 말이 제 안에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나서면 저는 씩씩한 한국 중학생이 됩니다. 학교가 끝나면 인도학교에서 영어로 토론하고, 잠들기 전에는 힌디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호기심 많은 학생이 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네 개의 언어를 쓰면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니?”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개의 언어는 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게 해주는 네 개의 창입니다.

제 언어 스위치가 가장 환하게 켜지는 순간은 한국 생활이 낯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엄마, 이분 말씀은요~” 하며 씩씩하게 통역 스위치를 켭니다. 그럴 때 저는 단순히 말을 바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와 두 마음을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언어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 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도 매일, 우리 집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네 개의 언어를 저의 강점으로 만들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안의 언어 스위치는 힘차게 켜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நமஸ்தே, வணக்கம், ஹலோ, மற்றும் 안녕하세요!

ஒரு நாளில் நான்கு முறை, மொழிகளுக்கு ஏற்ப முற்றிலும் வேறுபட்ட ஒரு வராக மாறும் தன்னம்பிக்கையான நடுநிலைப் பள்ளி மாணவி, நான் தி வாஷினி.

காலை 7 மணிக்கு கண் விழித்தவுடன், சமையலறையில் இருந்து அம்மா வின் குரல் கேட்கும்.
"திவாஷினி, சாப்பாடு தயார், சாப்பிடலாமா?"
என்று அம்மா கேட்பார்.
நான் தமிழில் பதில் சொல்லி, கொஞ்சம் சிறிய குழந்தையாகவும், செல்ல மாகப் பேசும் மகளாகவும் மாறிவிடுகிறேன்.
ஆனால் ஒரு நாள், அம்மா, அப்பா என்ற வார்த்தைகளைக் கேட்டுக்கொ ண்டிருந்தபோது, திடீரென்று எனக்கு ஒரு எண்ணம் தோன்றியது.
"அட? கொரிய மொழியிலும் இதன் ஒலி ஒத்திருக்கிறதே?"
அந்த நாளிலிருந்து, இரு நாடுகளின் மொழிகளும் எனக்குள் ஒன்றோடொ ன்று இணைந்திருப்பதை உணரத் தொடங்கினேன்.

– 중략 –

붙임4 제14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포스터

